

블랑팡, 로랑 발레스타와 안드로메데 오세아놀로지가 수행하는 특별한 임무를 후원하다

곰베사(Gombessa) 원정의 창립 파트너인 블랑팡이 수중 생물학자이자 포토그래퍼인 로랑 발레스타가 수행하는 새로운 미션을 후원한다. 지중해 연안에서 이뤄진 이 프로젝트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인간 활동의 중단이 해양 척추동물과 무척추동물의 개체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다. BOC III 시계 매출 금액 일부로서 후원하는 이 프로젝트는 2019년 7월 프랑스 지중해에서 이뤄진 곰베사 V 원정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다.

외부의 방해가 없는 현 상태에서 생물 다양성이 그 어느 때보다 나올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로랑 발레스타(Laurent Ballesta)와 안드로메데 오세아놀로지(Andromède Océanologie)는 블랑팡의 후원과 함께 지난 봄과 여름 인간 활동의 중단 이후 지중해 해양 생물다양성에 일어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과학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프랑스 지중해 연안 물 속 생물 다양성의 참고 지표를 기술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2년 간의 프로젝트의 일환이기도 하다.

2020년 봄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야기한 락다운으로 인해 해양 생물 다양성에 대해 연구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 주어졌다. 모든 것이 중단되며 관광, 스포츠, 낚시 활동 등을 즐기기 위해 해안을 찾는 인적이 극도로 줄어들게 되었다. 로랑 발레스타와 안드로메데 오세아놀로지는 이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환경 DNA 샘플링과 생체 음향 측정을 통해 인간이 닿는 장소(항구와 기타 다른 지점), 보호받는 해양 구역, 50-100m에 달하는 메소포틱 존(mesophotic zone)의 참고 지표를 만들기로 했다. 이 지표의 가치는 그 유명한 곰베사 V 과학 원정의 일부로서 지중해 연안의 환경 DNA 모니터링이 진행된 2018년과 2019년 얻은 지표의 그것에 견줄 수 있다.

이 특별한 미션은 폭넓게 연구한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전달할 것이다. 락다운 이전과 이후의 상황 비교를 통해 지중해 연안 지역에서 이뤄지는 인간의 개발이 생물 다양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여러 경험을 통해 봤듯이 자연은 인간이 물러날 때마다 자신을 더욱 드러내곤 했다. 몇 주 동안의 원정 동안 로랑 발레스타는 과거에는 거의 보지 못한 현상과 생물종을 관찰할 수 있었다. 작은 지중해 물고기가 모래에 만들어놓은 세포 형태의 구조물인 피커렐(picarel) 서식지, 프랑스 지중해 연안에서 사라진 후 코르스(Corsica)에서 흔적을 발견한 바 있는 상어와 가오리의 중간에 속하는 동물인 전자리상어속(angel shark) 등이 그 예다.

현재 프로젝트는 블랑팡이 2012년 창립 파트너로서 함께 해온 고펜사 원정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펜사 원정은 지금까지 접근 불가능하고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심해 생태계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까지 프로젝트는 5번의 주요 탐험을 비롯해 레위니옹 섬(Reunion Island), 필리핀, 폴리네시아, 지중해 등에서 추가 미션을 수행했다. 그리고 로랑 발레스타가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Blancpain Ocean Commitment, BOC)에서 주된 활약을 펼치고 있다.